KOVA News

제7호
2002. 11. 11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NEWS

INDEX

시론 ·····2
• 시론, 주요뉴스
벤처동향·····3, 4
• 정책동향, 기술동향
• 산업동향, 해외뉴스
벤처정보 ·····5
• 포커스, BOOK REVIEW
• 관련사이트
특집I ·····6, 7
• 통계로 보는 코스닥시장 현황
특집II ·····8, 9
•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협회뉴스 ·····10
• 벤처기업 확인절차 대폭 개편
협회현황 ·····11
• 회원현황
대덕밸리소식 ·····12, 13
• 풍향계
• 신제품/신기술
한국여성벤처협회 소식 ·····14
• 여성벤처협회 소식
• 회원사 소식, 알림
기관소식·····15
• 전시안내
• 기고/연회비 납부 안내
벤처단신·····16
• 한사랑캠페인
• 지회소식
벤처기업대상 수상업체 ·····17
신규회원사·····18
행사안내·····19
• 주요행사, 업무일지, 알림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 발행인 : 장흥순
- 발행처 : 벤처기업협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빌딩 7층 703호
- TEL. 02-562-5914
  FAX. 02-562-5922
- http://www.kova.or.kr

코스닥시장 지속적인 육성책 펼쳐야

전영삼/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회장

사람들의 눈과 귀가 12월 대통령선거에 쏠려 있다. 대선 주자들도, 또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도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말의 홍수에 또 몇 마디 보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대선 주자들과 차기정부에 800여 코스닥 등록법인을 대표하는 협의회 회장으로서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코스닥 등록법인이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코스닥 등록법인이 개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수한 연구 · 생산 인력을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동일 · 유사 업종의 회사가 모여 공동으로 기술을 연구 · 개발하고, 그 기술을 고부가가치의 상품개발로 연결하고, 그렇게 생산된 우수한 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벤처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일부 부도덕한 기업가의 비리가 전체 벤처산업의 비리로, 모든 코스닥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벤처의 지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벤처기업으로 코스닥에 등록한 회사가 일련의 벤처비리로 인식이 나빠지자 벤처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방법이 없는가를 찾는 희극이 다시 연출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셋째, 코스닥시장을 포함한 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전 증권거래소는 80년 이후 정부가 내놓은 경기 및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20여 년간 내놓은 50건에 달하는 정부 대책이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1년에 두 세 차례씩 거창한 대책을 발표해야 할 만큼 우리 경제나 증권시장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일시적 대증요법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지속적인 코스닥시장 육성책이 마련돼 국내외 투자자가 안정적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스닥지수가 천장부지로 치솟던 시절 동네 통닭집의 간판이 '코스닭' 으로 바뀌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던 것이 불과 2년여 만에 이제는 코스닥에서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코스닥시장을 떠나는 회사가 나타나고 있다. 회사의 주식을 어디에서 거래할 것인가도 유행을 타는가 싶어 씁쓸하다.

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이지만 분명한 점은 코스닥이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육성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